

기고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현대인의 일상엔 배터리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전동킥보드, 심지어 자동차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술 진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작은 면적에 비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 문제 발생 시 그 에너지가 외부로 나오면서 내부 물질을 가연성·독성 가스로 바꿀 수 있는 열을 생성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가 수십 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2024년 8월에도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져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이처럼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화재 예방이 가능합니다.

첫째, 배터리와 충전기는 반드시 정품 및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충전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배터리를 고온이나 직사광선 아래에서 충전하는 것은 피하고, 침대나 이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곳에서는 절대 충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충격을 받거나 부풀어 오르면 배터리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넷째,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과충전이나 장시간 방치를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보관할 때는 열이나 동전과 같은 금속 물체와 함께 두지 말아야 하며, 습기나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리 삶의 필수 자원이지만, 그 사용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기술은 날 발전하지만, 그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배터리 사용 습관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담양소방서장 이중희

“한 명의 악연을 피하는 것이 열 명의 귀인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격언처럼 인생에 치명적인 ‘악(厄)’이 되는 인연이 역사를 통해 종종 등장한다.

조선 영조 말기에 과거에 급제하여 영의정까지 지낸 서용보(徐龍輔)라는 재상이 있었다. 그는 고조 서종태(영의정), 증조 서명균(좌의정), 조부 서지수(영의정) 3대가 모두 정승이 나온 명문 태생이다.

그는 영재로 31세에 식년문과 장원하여 승승장구하게 된다. 이에 힘입어 청나라 서장관 자격으로 다녀와 함경도 암행어사로 활약했고, 이어 대사성, 호남 관찰사, 경기도 관찰사, 예조판서, 판의금부사, 대제학 등등 두루 고위직을 섭렵한 뛰어난 관료 출신이다.

일성록(日省錄)에 따르면, 그가 경기도 관찰사 재임 때에 탐관오리(貪官汚吏)의 비리와 악행이 심했다. 정조 임금 은 이러한 정보를 받고, 정약용 어사 포함 10명 외에 직간사관(直幹史官,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관) 5명을 경기도 일부 지역에 파견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나이 33세인 정약용은 혈기 왕성한 장년의 나이에 정조로부터 중요직(淸要職, 가장 깨끗하고 귀한 요직)의 암행어사 직책을 제수받았다. 이명을 무겁게 여긴 정약용은 18일 동안 경기도 적성, 마전, 연천, 삭령 네 곳을 샅샅이 염찰(廉察)하였다.

어느 날 정약용은 ‘마전 고을’을 염찰하였다. “경기도 관찰사 서용보 측 집안 사람이 뒷자리를 삼고자 마을 선비들을 협박해서, 마전 향교의 대성전을 옮기고 명륜당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할 자를 체포하여 징계 처분했다.”

칼럼

AOU대학교 백강 이동환



정약용 암행어사 임명과 검사 등용

이에 분노한 마을 백성들은 고발과 비리를 종합하여 암행어사 정약용에게 비밀리에 알리었다. 탐관오리들의 악행과 비리를 모두 종합, 서계(書啓)를 작성하여 있는 그대로 정조 임금에게 상소(上疏)하였다.

정약용은 「경기 암행어사 복명후 상소」에서 “법을 적용할 때는 마땅히 임금의 최종근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用法宜自近習始), 민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국법을 존엄하게 한다(以重民生以尊國法)”라면서 피폐한 농촌의 실태와 관리의 탐학성(貪虐性)을 더 절절하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관찰사 서용보와 군수 2명이 파직되었다.

이때 어사 정약용과 관찰사 서용보 사이에 형성된 ‘악연’으로 다산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

이 사건 이후 서용보는 정약용을 ‘18년간의 유배객’으로 만들어 놓는 등 길고 긴 어두운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1801년 신유박해 당시, 국문(鞫問) 결과 다산은 큰 잘못이 없다고 판명되어 재판 관계자 모두가 그를 석방하자고 했으나, 위관(委任)이던 우의정 서용보가 강력히 반대에 귀양길을 떠나

야 했다. 그리고 귀양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03년에도 대비인 정순왕후(영조 계비)의 석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서용보가 이를 가로막아 풀려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배(解配) 후에도 그의 반대로 번번이 관직에 등용 길을 뚫지 못했다.

암행어사 시절 악연이 이렇게 길고 질겨 정약용의 쇠사슬 멍에가 될 줄 몰랐다. 그러나 운명은 어찌할 수 없다. 앞날지만 서릿발 같았던 원적주의자 정약용과 오기(傲氣)와 출세주의 서용보의 대립이 역사에 남긴 여운은 너무나 안타깝다.

정조의 ‘어찰첩(御札牒)’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정조는 심환지와 서용보를 가까이 두고 맘을 나누며 신임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서용보는 더 망나니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산 정약용의 형제가 멸문지화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성인 공자도 양화(陽貨)에게 죽을 뻔했다. 양화는 30년간 공자를 따라다니며 모함하고 괴롭혔다. 결국 양화가 죽은 후에 공자는 50세 넘어서 관직을 얻었지만, 그의 개혁 정치 이념을 받아드리지 못해 관직에서 물러나 후학들에게 자신의 사

상을 전파하는 일에 몰두했다.

예수도 마찬가지였다. 해룻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한 해룻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가족이나 신하, 심지어 그의 유아들까지도 잔혹하게 살해했던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정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했던 출신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현 법무국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서 아무도 대통령 의중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어떤 정치인은 “검사 2,300여 명의 보직을 관리하는 중차대한 사람이 검찰국장이다. 조선시대로 비유하면, 이조전랑과 같은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자리이다.” 이런 권력의 핵심에 윤석열 라인 성상현 검사를 법무국장에 보직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혹 이들이 흑심을 갖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재를 뿌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윤 갈등(추미에-윤석열)으로 국민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는지 알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된 후 정적 이재명을 관용하기는커녕 제거하기 위해 그를 둘러싼 여러 혐의(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개발 등)를 3년 동안 줄기차게 수사하였지만, 결국 구속을 하지 못하고, 내란 사건으로 오히려 본인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요직에 등용된 이들은 과연 조선시대 서용보 같은 생각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인과응보가 마치 진리로 여겨진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음력 7월 19일)

- 48년생 연연히 다르다. 비탄 깊을 뻔해내자 60년생 기던 걸음 멈추고 뒤로 돌아가지 72년생 순서가 아아아아 앞으로 나서보자 84년생 흥만 지스는 노동 가치를 더해보자 96년생 분위기를 맞추고 흐름을 따라가자

- 49년생 서두르면 손해 느긋함을 가져보자 61년생 꿈으로 했던 목표 손으로 잡혀진다 73년생 소박하고 포근한 축제를 받아보자 85년생 노력과 무용담이 펼쳐진다 97년생 국적인 반전강은 바다로 간다

- 50년생 간짜와 만나려면 발품을 팔아보자 62년생 아쉬움도 미련도 바람에 실어내자 74년생 새식구 합류 반기음이 더해진다 86년생 낭비 없는 살림살이고 아껴내자 98년생 처음 본 인연과 사랑을 만들어보자

- 51년생 기쁨이라 쓰여진 소식을 들어보자 63년생 경사 중의 경사만세 가 불러진다 75년생 경의는 살아있다. 약자 편에 서보자 87년생 까칠한 반대거절임을 알아내자 99년생 시간 맞추는 약속 점수로 매겨진다

- 52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옥석을 가려내자 64년생 쓴술이 달아지는 호사를 누리보자 76년생 주고받는 계산 정으로 해야 한다 88년생 우뚝한 교만 회초리를 불러낸다 100년생 방법을 알았으면 실천으로 옮겨보자

- 53년생 속삭이는 유혹 거짓이라 단정하자 65년생 제대로 간다 77에 출주고 노래하자 77년생 울타리 밖에서도 가장 노릇 해내자 89년생 한결같은 믿음 뿌리를 내려보자 01년생 멋으로 하지 마라. 진심만 보여내자

- 54년생 옛날이 계획 빠르게 돌아서자 66년생 주머니 든든하니 어깨도 높아진다 78년생 포기할수 없는 이유를 가져보자 90년생 잘하려 하지 마라. 꾸준하기가 한다 02년생 현실적인 목표 차선으로 돌아서자

- 55년생 평화로운 순간 그림으로 그려보자 67년생 고생해야 했거 대담조차 못 듣는다 79년생 불만현상에서 최고를 찾아내자 91년생 무거운 책임감 한숨이 깊어진다 03년생 청출어람 승씨로 칭찬을 받아내자

- 56년생 우렁찬 목소리에 은퇴도 미루진다 68년생 깡깡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80년생 피하고 도망치는 약자가 되어보자 92년생 방정환 거절로 원망을 들어보자 04년생 금쪽같은 조언 실천으로 옮겨보자

- 57년생 꿈으로 했던 순간 눈물도 함께 한다 69년생 다시 와 온 것에 귀를 지켜내자 81년생 같은 처지 슬픔 서로에게 의지하자 93년생 변함 없는 초심 지키고 아껴내자 05년생 필요한 성장 아무지게 받아내자

- 58년생 씨뿌려 연은 결실 부자가 되어간다 70년생 만만하다 병성 후유증이 크게 온다 82년생 혼자만의 욕심 친구를 잃어간다 94년생 정성을 더해가 허락이 떨어진다 06년생 미숙한 청춘이다. 꺾고 더듬어보자

- 47년생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보자 59년생 고미운 이웃이 금한 불을 꺼준다 71년생 주인이자 손님인지 구분해야 한다 83년생 방정한 평가 누락함을 받아내자 95년생 서두르면 준비 물음표가 그려진다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Table with subscription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prices, and terms of service.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